

한라시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기념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의 성과보다 한계와 과제가 주로 제시됐다. 준 연방제 수준의 고도 자치권이라는 비전과 특례 나열식 입법 구조와 재정 분권의 한계 등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특별자치 20년을 맞이한 지금 도민의 삶과 제주의 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과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훼손과 도민의 삶의 질 변화 역시 앞선 평가와 다르지 않

특별자치 20년, 도민의 삶과 환경은 나아졌을까?

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강조해 왔지만, 실상은 개발 중심의 정책으로 환경 감동이 빈번했다.

제주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제주의 미래 비전으로 규정했다.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된 지역으로 정의한다. 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여기에 제주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환경보전의 가치는 없다.

자본주의 경제는 끊임없는 성장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은 착취·수탈되기 마련이다. 2010년을 전후로 저비용항공사의 제주노선 취항이 늘면서 관광객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열리고, 더 많은 자본투자와 신규 관광개발이 추

진됐다. 마을공동목장이 대규모 자본에 팔려 골프장, 리조트 개발이 시작되고, 100만 평이 넘는 공유지 못자 알마저 스스럼없이 개발사업자에 넘기는 현실이었다. 중국자본 유치를 위해 직접 중국어로 된 마을 땅 소개 책자를 만들어 중개업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는 수십 개월에서 수개월로 크게 단축하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투자자의 편의를 적극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의 절차는 형식적인 통과예였고, 면죄부였다.

새 도정마다 환경보전을 내세우며, '선보전 후개발', '정정과 공존' 등의 구호를 외치지만 공색한 포장일뿐 성장과 개발을 우선하는 신개발주의의 길을 고수했다. 각종 인허가 관련 위원회는 개발의 정당성을 위한 수단이었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정보 제공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난 20년간 제주의 인구와 경제·재정 규모는 분명히 성장한 것은 맞다. 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전국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은 매년 최하위이며, 비정규직 비율은 최상위인 것이 현실이다. 지하수, 경관, 바람 자원 등 공유자원이 사유화되고, 곳자왈과 초지가 사라져 대규모 개발단지가 들어서는 등 제주의 가치를 팔아온 결과이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의 현실에서 개발과 성장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다. 지속가능한 도민의 삶을 우선하고, 생태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별자치 20년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질적인 삶을 우선하는 도정으로 가야 한다.

사설

고위험 산모 타 지역 헬기 이송 방지할건가

고위험 임신부의 타 지역 이송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분만 인프라 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더욱이 개원 이후 27년 동안 제주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약 4분의 1을 책임져 온 병원이 폐업을 결정해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될 위기다.

제주도내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20여 곳이 있지만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5~6곳에 불과하다. 분만 병원은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와 수술실, 신생아 관리시설, 마취 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분만 가능 기관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역 출산 인프라의 핵심 축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도내 고위험 산모의 진료와 분만이 타 지역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 헬기를 이용한 고위험 산모의 타 시·도 이송 사례는 2022년 2건, 2023년 9건, 2024년 9건, 2025년

에는 18건으로 갑절 증가했다. 올해도 8월 현재 10건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총 346건의 응급분만 가운데 34건이 소방헬기를 이용해 도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앞둔 제주대학교 병원까지 의사 부족으로 고위험 산모의 진료를 다른 지방으로 위탁했다.

제주지역은 분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도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가 녹록지 않다. 또 출산을 감소로 분만 건수가 줄어들면서 병원 수익성은 악화됐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높은 업무 강도는 젊은 의사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의료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지역 활력 더하고 공연장 걱정 없는 관악제로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한 제3회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이 오는 7일 팡파르를 울린다. 제2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도 나란히 열려 축제 기간 20여 개국의 전문 연주자와 동호인들이 제주에 모일 예정이다. 국내외 수천 명의 참가자가 광복절인 이달 15일까지 제주를 금빛 선율로 채우며 음악 선율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관악제는 국내 대표적인 여름 음악 축제로 꼽힌다. 지난 6월에는 전국의 우수 공연 예술 단체를 미리 선보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6 아르코 섬 페스타'에 참여해 서울 도심에서 관악 공연을 펼치는 등 관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제주 관악인들이 의기투합해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제주도(제주시)의 지원이 더해지며 양

적, 질적 성장을 해 온 국제관악제이지만 이번 여름 시즌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제주시 지역의 주요 공공 공연장 리모델링 등 시설 공사로 인해 무대 확보에 애먹은 것이다. 제주아트센터에서 개막 공연을 열고 문예회관에서 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개최 등을 결정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거기다 최근 연 탐등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과 맞물려 해변공연장 훼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야외 시설인 해변공연장은 시원한 금빛 선율로 여름 관악제의 매력을 알려 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국제관악제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제주의 브랜드로 키워 온 축제다. 지역 상권에 활기를 더할 수 있는 마케팅 강화 등 주최 측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연장과 같은 축제의 핵심 인프라가 흔들려선 안 된다.

열린마당

인사보다 먼저 올린 출동벨, 조천119센터에서

김동환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2학년)

서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대응이 요구됐고, 한순간의 판단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느꼈다. 대원들은 침착하게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정확히 정보를 공유했다. 환자와 보호자를 안심시키면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출동은 교통사고 현장이었다. 차량 정체와 경적, 응성거림 속에서도 대원들은 현장을 확인한 뒤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처치를 시행했다. 서로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침착함과 의사소통, 팀워크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습은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을 넘어 응급구조사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번 경험이 어떤 곳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실제 현장은 달랐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뉴스-in

시민고충처리위, 실생활 고충 해결 '앞장'

근로계약 개선·장기 민원 해결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 민원을 해결 등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고충을 해결.

먼저 '1월 2일~12월 31일'로 근로계약을 맺은 제주도 소속 기관 계약직들이 건강보험료 납부·실업급여 수급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12개월 채용 시 계약 기간을 '1월 1일~12월 31일'로 명시하도록 관련 부서에 행정지도할 것을 의결했고 행정기관이 이를 수용.

또한 2013년 개인주택 오수배수설비 공사 당시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고 오수관 매설 깊이가 높아 옥내 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재시공을 요청한 민원에 대해 전문조사관의 현장 조사와 부서 간 조정을 통해 주민 민원을 해결.

오소범기자

동홍동 '동행편의점' 운영

○...서귀포시 동홍동과 동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의 편의점 14개소와 함께 '동행편의점' 사업을 추진.

5일 동홍동에 따르면 이 사업은 '편의점과 동홍동이 함께 만드는 위기가구 발굴 및 독사 예방 행복 프로젝트'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

강익자 위원장은 "편의점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인 만큼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복지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장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남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혈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